

# 미국서 불화 시연하는 한국의 세 스님

### 설민, 명천, 성운 스님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학과 3학년 비구니 설민 스님(사진)과 명천 스님(경남 함양 황윤암 주지), 성운 스님(통도사) 등 불화가 세 스님이 벽안의 이방인들에게 한국불화의 전통 기법을 선보인다.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한 달 동안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 박물관'에서 외국 관람객들에게 한국 불화의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시연 행사에서다. 2003년 같은 장소에서 불화 제작 시연을 한 뒤 '관람객 반응이 좋았다'며 박물관 측이 다시 초청 이벤트를 마련한 것.

이번 행사에서 관음행화를 전시하는 설민 스님은 지난 1년 내내 학교를 마치고 인근 암자의 작업실에 틀어박혀 길이 2.8m 폭자에 '수월백의관음(현웃을 입은 관세음보살·사진)' 행화를 그렸다. 미국에서 전시하는 것이 한 달이라 이 기간 동안 미국에서의 작업분만 남겨두고 거의 마쳤다.

설민 스님은 "2003년에 처음 시연할 때는 현지인들이 중국 불화인 것으로 착각하는 일도 있었다"며 "두 번째 인 만큼 차별화된 한국불화의 전통 기법을 자세히 보여 주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이어 스님은 "한국 불화는 작품 수가 많지 않지만 기는 선을 수없이 그려 양감까지 표현하기 때문에 화려하고 세밀하다. 수개월에 걸쳐 완성되는 일종의 수행 과정인 작품 과정까지도 알려 귀중한 유산임을 홍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연회에서 또 다른 불화가인 명천 스님도 불법을 수호하는 장군 모습의 보살 그림인 '동진보살' 행화를 그린다.



시연이 끝나면 수월백의관음도와 동진보살도 등 완성작 2점을 걸어 놓고 스님들이 직접 염불을 외우며 그림에 생명

을 불어 넣는 '점안 의식'을 진행해 우리 불교 문화의 다채로운 모습도 보여줄 예정이다. 또 관객이 <반야심경> 등의 경전을 목판으로 직접 인쇄하고 신라 향가 14수의 서예 작품을 볼 수 있는 부대 코너도 마련해 한국 불교문화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주도 태생인 설민 스님은 출가 전 중 2때부터 6년 동안 개인 교습으로 서양화와 동양화 등을 배웠다. 고1 때는 스님이 되고 싶다고 하며 막무가내로 사찰을 찾았지만 '고교 졸업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스님의 면박에 발길을 돌렸다. 이후 제주대에 입학한 지 1년도 못 돼 출가를 했다. 그림은 속가 시절 취미로 접어둔 채 동토스님들과 경남 김해에 휴식을 짓고 수년 동안 수행만 했다.

설민 스님이 그림에 대한 열정을 되살린 것은 1991년. 법당에 걸어 놓을 불화를 시러 가게를 들렀는데 상업적인 그림밖에 없어 직접 그려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후 전통 불화에 대한 책을 읽으며 행화 2점을 그렸다. 그 작업이 인연이 돼 1998년부터 매년 한점씩 꾸준히 작품을 내왔다. 2003년 불교 미술전에서는 '사천왕 행화'로 특선상을 받기도 했다. 명천 스님도 불화를 그리게 된 동기는 마찬가지로. 해외전시는 오히려 명천 스님이 선배다. 스님은 2001년 '사경변상도(무구정광대다라니경)' 3점을 그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 박물관에 기증했다. 스승 없이 15년간 수없이 습작하며 갈고 닦았다.

명천 스님은 "앞으로도 기회만 된다면 우리 한국불화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는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 반가사유상 등 불교문화재 미국 나들이

### 미국 휴스턴미술관 한국실 개관

12월 7일 미국 휴스턴 미술관에 한국실(사진아래)이 개설됐다. 한국실은 토기와 도자기, 불교미술, 여성 장신구, 현대미술품 등 4개 부문으로 나뉘며,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 조선시대 용무늬 철화백자 등 다양한 문화재가 전시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홍남)은 이번 개관을 위해 주요소장품 37점을 대여했다. 이 가운데 35점은 2년간 전시되며, 국보 1인



금관총 출토 신라 금관(제87호)과 허리띠(제88호)는 2개월간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삼국시대 반가사유상(사진 오른쪽)과 통일신라시대 금동불입상, 고려시대의 금동여래좌상 등 불교 문화재 전시는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휴스턴 미술관은 고대에서 현대까지 이르는 유럽, 아시아, 남북미, 아프리카 문화재 5만5000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연간 25만명이 관람하는 미국 남부의 중심 박물관이다.



조동성 기자

# 동방대학원대 '중국 명비 탁본전'

### 19일까지 백악미술관서 열려

동방대학원대가 (재)예문와 함께 '중국 명비 탁본 전시회'를 12월 19일까지 인사동 백악미술관 2층 전시실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한시대의 '석문송'과 '장천비', 동진시대의 '난정서', 북위시대의 '장맹옹비', 성당시대의 '쟁좌위협' 등 25여점이 선보인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석문송(石門頌)'과 '난정서(蘭亭序)'다. 석문송은 높이 261cm, 넓이 205cm, 22행으로 매행 30자 혹은 31자로 불균등하게 이루어졌다. 편액에는 '故司隸校尉楊君頌' 사례교위 양맹옹을 기리는 송을 세운다' 뜻의 열 글자가 쓰여 있다. 서명은 예서로 돼있으며, 모두 617자로서 중국 동한시대의 유명한 각석이



동한 '석문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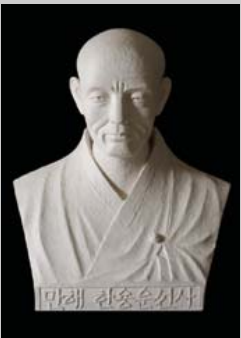
다. 또 '난정서'는 왕희지와 손자 등 41인이 난정(지금의 절강성 소흥)에서 읍주와 시를 지으면서 분위기가 고조될 즈음에 왕희지가 쓴 서문이다. 미불은 이것을 두고 "천하제일의 행서"라고 극찬했다.



동진 '난정서'

이 비첩은 처음의 초고가 28행 324자로 돼있다.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신운본(神龍本)'이 가장 예술적 가치가 높다. (02)745-8052 김주일 기자

# 이 땅의 정신세계 풍요롭게 일군 63 선지식 조각전



깨달음의 길을 간 수행자 63인의 초상이 선보였다. 아도화상, 이차돈, 원광 법사, 자장 율사, 원축 대사, 원효 대사, 의상 조사, 지장 대사, 도선 국사, 도의 국사, 부설 거사 등. 지난 1600여 년 동안 이 땅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일구어온 이들은 시대의 빛이며 거울이다. 바라보는 초상은 우리에게 '너

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나?' 라고 묻는다. 이런 대덕의 얼굴엔 수행자로서 엄정함과 자비로움 그리고 정신의 형형함이 가득하다. 인사동 그라운드 갤러리에서 12월 12일~12월 18일까지 이 성도 교수(한국교원대의) '한국 고승대덕의 초상조각전'이 열렸다. 김주일 기자



詩書로 떠나는 암자기행 ㉞

**천불산 청량암**

청량암(淸涼庵) - 가야산 일천봉우리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정암한 남산 제일봉에 자리한 암자.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듯 가야산 일천봉우리도 저마다 제 몸에 드는 길을 하나씩 갖고 있다. 산이 산에게로 돌아가는 길마다 고풍스런 절집의 연등이 내걸려서 그 길을 따라가면 연화세상(蓮花世)일 듯 싶다.

## 미봉스님 초청 사주 친견

# 전국의 명산에서 30여년 수행 정진한 미봉스님

초년, 중년, 장년 이렇게 세 번 온다는 '나의 운'은 언제일까?  
운이 도래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가에 따라서 부귀빈천이 나누어 진다고 한다.  
당신의 운세를 미봉스님께서 '영험한 법력'으로 풀어 드립니다.

스님은 개인의 사주에는 정명(正命), 수명(隨命), 조명(遭命)의 세 가지 사주가 있다고 한다. 정명이란 힘써 노력하지 않아도 길함이 저절로 이르는 것인데, 전생에 많은 선업의 공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둘째 수명이란 힘써 노력하면 길함이 오고 노력하지 않으면 반대로 흉화가 닥치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조명이란 좋은 일을 하여도 재앙이 닥치고 원하는 바도 아닌데 밖에서 부딪혀 흥화를 만난다. 이런 명은 전생에 크나큰 악업의 과보로 보인다. 이렇게 세 가지 명을 유추하여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 미봉스님은 전국의 명산에서 30여년 수행 정진하며 명리학을 탐구하신 스님으로 세간에 알려진 유명한 스님이다.

스님은 무자년 쥐띠 해를 맞이하여 부산 지하철 1호선 장전동역 역사내에 있는 출판사 강당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개인의 사주와 운세를 봐주는 행사를 한다고 한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고통 받고 고뇌하는 불자들을 위하여 지금까지 수행 정진한 공부를 회향하는 자세로 상담에 임하겠다고 한다. 유난히 힘겨운 분들이나 2008년 새로운 계획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미봉스님을 만나볼 것을 권해본다. 친견 접수비는 3인 가족 기준 2만원이며, 전화로 사전예약접수 하시면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친견을 할 수 있다.

-도시출판국부카르마 제공- 문의:(051)583-9923-5

**일 정**

12월26일~12월31일 (6일간)

선착순 예약접수 받습니다.

**예약접수**

051)583-9923 ~ 5

**이런 분들은 미봉스님을 친견하세요**

- 사업 • 매매 • 취업 • 승진
- 삼재 • 공부 • 건강 • 결혼

**특별 원진실**

사귀안두각 - 취가 할 동안 것을 싫어하니 상국이다.  
우선마음김 - 소가 앞보고 밭을 못간다고 싫어하니 상국이다.  
호랑이재신 - 뱀이 개 울음소리를 싫어하니 상국이다.  
호랑이재신 - 토끼가 편승이 들끓소리를 싫어하니 상국이다.  
정말정현죽 - 풍이 돼지 울음 소리를 싫어하니 상국이다.  
사귀안두각 - 뱀이 닭 주둥이 보복을 싫어하니 상국이다.

■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

■ 장소 : 부산 지하철 1호선 장전동 지하철 역사내 3번 출구 안 (사전 예약 하셔야 합니다. 전화 접수 가능)